



제주 바다가 전해주는 짜디짠 인생 이야기

이달 29일 개막 제주영화제 개막작 '빛나는 순간' 선정 트럼펫경쟁작 '헛묘' 등 세 편 폐막작 '영원과 하루' 상영



16회 제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제주해녀 소재 영화 '빛나는 순간'. 고두심과 지현우가 주연을 맡았다.

'섬(Island)' 영화제를 표방하는 제주영화제가 짜디짠 제주 사람들의 인생을 녹여낸 '빛나는 순간(Everglow)'을 개막작으로 상영하며 약 한달간의 일정을 이어간다.

사단법인 제주영화제(이사장 권범)가 주최하는 제주영화제는 이번이 16회째다. 이달 29일 오후 2시 제주아트센터에서 막이 올라 12월 27일까지 펼쳐진다.

개막작인 '빛나는 순간'은 소준문 감독이 제주올로케이션으로 제작한 영화다. 제주영화제 측은 "제주가 영화의 단순한 배경에 그치지 않고 제주 안의 제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품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진심 어린 위무의 과정을 찾고자 노력하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를 응원하기 위해 개막작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주연 맡은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지현우와 명필름의 이은 제작자가

함께하고 상영 뒤 관객과의 대화도 있다. 이 작품은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제주자동차극장에서 한 차례 더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제주트럼펫경쟁작도 선보인다. 이번 경쟁작은 제주에

서 만들어진 흥연이 감독의 '아동급식', 김승환 감독의 '이추록 편사인', 변성진 감독의 '헛묘' 세 편이다. 12월 20일 오후 3시 CGV제주노형에서 도민 관객과 전문가 투표를 거쳐 트럼펫경쟁작을 뽑는다. 도민 투표단은 12월 1-8일 모집한다.

평풍시네마 섹션도 있다. 탁구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선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탁구에호가들이 시놉시스와 캐릭터 피칭에 도전했고 5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12월 12일 오후 2시 TBN제주교통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되는 피칭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세 편은 창작지원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폐막식은 12월 27일 오후 3시 CGV제주노형 1관에서 열린다. 폐막작은 제주에서 작업 중인 민병준 감독의 '영원과 하루(Eternity and a Day)'다. 상영이 끝난 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예정됐다.

제주영화제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있다. 문의 748-0503.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한은주의 모노드라마 '자칭비'.

자칭비 따라 거리에 피어난 메밀꽃

바람씨어터 제작 공연 모노드라마·낭독극 등 문화공간 찾아가는 무대

제주무속신화 '세경본풀이'의 자칭비 이야기가 제주 곳곳에서 하이얀 메밀꽃 같은 공연으로 피어나고 있다. 바람씨어터의 '그사이 메밀꽃' 프로젝트다.

이번 공연에선 모노드라마, 낭독극, 음악회 등 각기 다른 빛깔로 자칭비 신화를 풀어낸다. 신화로 구현된 자칭비는 두려움없이 여자와 남자를 오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여신' 이상의 존재다. 메밀은 자칭비가 연인 문 도령과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받은 씨앗 중 하나로 생명력 넘친 곡식으로 그려진다.

모노드라마는 이달 27일 오후 7시 와흘메밀마을 체험힐링센터, 28일 오후 7시30분 그리고서점, 11월 29

일 오후 7시 공장카페 감에서 공연된다. 한은주 배우는 극작, 연출까지 1인 3역으로 2017년부터 모노드라마 '자칭비'를 공연해왔다. 그는 75분 동안 극을 이끌며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낸 여자, 생명·평화의 가치를 제시한 땅의 여신' 자칭비를 우리 앞에 불러낸다. 강송이씨가 가야금 연주를 맡는다.

소리로 '보는' 연극 '자칭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창작공간 풍낭아래 굴림, 오후 7시 무명서점을 찾는다. 모노드라마 '자칭비'를 김현아, 원채리, 정유미, 최정현, 한은주 등 여러 배우가 참여하는 낭독 버전으로 빛난다.

앞서 지난 8일엔 필코 스튜디오(한경면 저지리), 카페동경엔책방(애월읍 하귀리)에서 한은주 배우와 여성중창단 플로레스가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자칭비와 메밀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가 발표됐다. 문의 010-3716-5527. 전선희기자

해녀의 생명력 다시 몸짓 언어로

도립무용단 '이여도사나...' 지난해 초연 작품 보완 무대

제주도립무용단이 '이여도사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다. 이달 28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는 제53회 정기공연 '이여도사나-생명편'이다.

이여도, 삼승할망, 해녀를 소재로 창작된 '근미래 판타지 무용극'으로 소개된 이 작품은 지난해 11월 기획공연으로 초연된 '이여도사나'를 보완했다. 가상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해녀의 모습을 한 삼승(아기를 짐지하고 산육을 관장하는 신)을 만나 자신의 소리를 갖게 된다는 성장 드라마를 현대인의 삶에 빚대 풀어

낸다. 김혜림 상임안무자는 "생명편에서는 토속과 판타지의 모습을 더욱 대비시켜 모던한 제주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민선 작가가 대본을 썼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예술감독을 지낸 박동우씨가 무대디자인을 맡았다. 제주 출신으로 동아무용공쿠르 수상 경력의 현해연(삼승 역), 제주 출신 차석단원 강현정(고을나 역), 전주대사습놀이 수상자인 김기승(역심관 역) 단원이 주역으로 나선다. 제주 소리꾼

이원경은 제주민요를 재해석해 들려준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품이다.

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부재호 원장은 "이 무대가 삶과 코로나 지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된다. 문의 710-7641.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이진희 시인 초청 북토크

제주문학의 집이 이달 27일 오후 7시 문학의 집 강의실에서 제주 출신 이진희 시인을 초청해 북토크를 연다.

이진희 시인은 2006년 계간 '문학수첩'으로 등단했고 시집 '실비아 수수께끼' 등을 냈다. '현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깊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집'이라고 평가받은 '페이커'로 2020년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날 북토크는 강은미 시인과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070-4115-1038.

예술가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문화 예술 환경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2020 하반기 예술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기획서·포트폴리오 작성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획서·포트폴리오 교육은 이달 26일부터 기본부터 실재까지 실습을 병행, 시각과 공연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온라인 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은 12월 7-11일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800-9134.

중국·제주 교류역사 강연

제주도행정동우회(회장 김형수) 주최 '중국과 제주의 문화경제 아카데미'에서 권무일 작가가 '탐라국시대 중국과 제주의 교류역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조선시대 표류민으로 중국 땅을 밟았던 제주인 이방익의 기록을 다룬 '팽설 이방익 표류기'를 출간한 권무일 작가는 이달 27일 오전 10시 미래컨벤션센터 1층 노블레스홀에서 제주바다와 항로를 시작으로 고대탐라국의 활동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연·노형여성합창단 공연

와이낫연·노형여성합창단(단장 정미정)이 이달 27일 오후 7시 30분 제주대 아라무즈홀에서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를 주제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약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연·노형여성합창단은 배서영의 지휘, 양혜원의 반주로 '페스티벌 상투스', '기뻐하라', '노래하는 곳에', '붉은 노을', '낭만에 대하여' 등을 들려준다. 바리톤 정호진, 색소폰 주자 정샘, 타악기 연주자 서동욱이 특별출연한다.

박성진 개인전 '돌담이 있는 풍경'

가을, 겨울의 돌담 이미지를 화폭에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아트인명도암 초대전으로 마련된 박성진 개인전 '돌담이 있는 풍경'이다.

서른여섯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박성진 작가는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인 돌담을 통해 제주를 바라봤다.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돌담-역새', '산방산' 등 50호 크기를 중심으로 2020년에 제작된 약 20점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 자연이 품은 풍성함을 재해석해 무채색과 청색 바탕으로 공간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지난 21일 시작된 전시로 12월 4일까지(수요일 휴관) 이어진다.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인 박 작가



박성진의 '돌담-역새 1'.

는 제9회 두들라 국제 초상 그래픽&드로잉 비엔날레 대상, 한국현대문화가협회공모전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다. 최근 제주 자연과 그것들의 색깔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회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선희기자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비데렌탈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버스 | 제주제일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BD-AFE50N	BD-N530A	BD-N443(리모컨)
<p>3년 약정 무상 A/S</p>	<p>3년 약정 무상 A/S</p>	<p>3년 약정 무상 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래변, 순간온수방식, 어린이기능 <p>월 16,9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공기방울리듬세정, 접이식조작부 <p>월 19,9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리모컨형, 탈취, 공기방울세정 <p>월 24,900원</p>

문의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064)758-0991** | 제주시 연삼로17(연동)